

“시민혈세로 임금 올리고 안전의식은 왜 안올리나”

광주시내버스 이틀째 파업
최근 3년 교통사고 증가세
3년 6개월동안 537건 발생
운전원 안전교육은 외면
체질개선 메스 들이대야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인상’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준공영제가 도입된 뒤 해마다 1~6% 가량의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짜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안전에는 등한시해 사고가 늘어나면서 시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실정인데다, 서비스 만족도도 시민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민편의 우선의 교통행정을 위해서라도 임금 협상만 논의할 게 아니라, 시내버스 체질 개선에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의 발’ 믿고 탈만한가=지난 2011년부터 올 6월 말까지 발생한 광주시내버스 사고는 537건. 이 기간 발생한 사고로 786명이 다쳤다. 사망자도 8명에 이른다.

2.38일에 한 번 꼴로 교통사고가 난 셈인데, 이용객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시내버스를 타기 겁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시내버스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행 중 사고건수는 ▲2011년 145건(사망 2명·부상 182명) ▲2012년 154건(부상 218명) ▲지난해 167건(사망 4명·부상 264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년새 무려 15.79%가 늘어난 것으로, 올해도 현재까지 71건(사망 2명·부상 122명)의 시내버스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올 해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 불이행이 40건(56.3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차선위반 7건(9.86%) ▲신호위반 및 안전거리 미확보 각각 5건(7.04%) 등의 순이었다.

많은 이용객을 실어날르는 점을 감안하면 운전원들의 안전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1명(43.6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3명(32.39%) ▲60대 13명(18.30%) ▲20~30대 4명(5.63%) 등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높다는 점에서 젊은 운전원 확보 등의 대책 마련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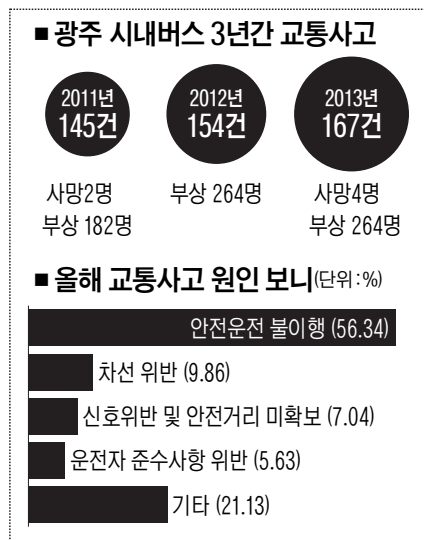
시간대별로는 정오~오후 1시가 18건(25.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퇴근시간인 오후 6시~7시 14건(19.71%) ▲오후 4시~5시 13건(18.30%) 등의 순이었다.

◇안전 의식 미흡=같은 교통사고 뒤에 광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노조의 ‘anyi안’ 안전 불감증도 한몫을 하고 있다



광주시내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 24일 광주의 한 버스회사 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는 지적이 많다.

광주시의 경우 산하 기관인 교통문화연수원에 시내버스 기사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의뢰, 매년 4시간씩 교통법규 및 친절·차량관리·사고 예방 등 보수교육만 할 뿐 응급상황 발생 시 승객 대피 및 구조 등을 위한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운송업체도 ‘뒷집’만 지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통해 시내버스 운전원들의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단 한 차례의 의뢰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교통안전공단측 설명이다.

그나마 10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은 모든 운전원이 아닌,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기사를 위주로 한 교통관계법규 교육 등만 진행했을 뿐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운송사업자들의 경우 버스 운행이 없는 기사들을 휴일 교육에 투입하면서 지급해야하는 일당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혈세를 받고도 승객의 안전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종행기자 glee@/백희준 수습기자 bhj@

고령의 비정규직 운전원 대체 투입...고강도 근무로 사고위험

750명 중 520명이 60세 이상

광주시내버스 노조 파업으로 고령의 비정규직 운전원들이 대체 투입되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가 23일부터 파업에 나선 이후 시내버스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뒤 재취업한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운전경력자 등은 젊은 운전원들을 중심으로 대체 인력을 꾸려 시내버스 운행을 맡겼다.

광주시내버스 운전원(2025명) 중 노조에 속하지 않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들은 750명으로 이들 중 520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기존 광주지역 시내버스 회사를 다니다가 정년퇴직한 뒤 중형버스 운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머지 230명은 다른 회사 등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2년차 미만의 입사자들이다.

버스운송업체는 이들이 60대 이상의 고령이거나 운전경력이 짧다는 점 등을 감안, 승객 수가 적고 사고 위험이 덜한 담양·화순·장성 등 시외노선을 맡겨왔다.

이들이 파업을 전후해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최대 사흘 간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뒤 하루 18시간씩 강도높은 근무를 하면서 또 다른 불안감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

이다.

나이가 고령일수록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고령인 이들의 피로도가 쉽게 누적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운송사업체의 경우 젊은 운전원을 고용한 뒤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젊은 운전자 채용을 꺼리는 한편, 고령자 재취업에 따른 노조원 복지를 챙긴다는 그럴듯한 명분과 65세까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 등을 들어 고령 운전자를 선호해 개선책도 요구되는 행편이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밤 9시 막차...야자 중지 등 기말고사 앞둔 중고생들 불편

(야간자율학습)

내일부터 전세버스 260대 투입

노사간 임금 협상 결렬로 빚어진 버스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기말고사를 앞둔 중·고등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년 만의 버스 파업으로 기말고사를 앞둔 수험생 등 중·고등 학생들은 버스가 일찍 끊기면서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못하고 일찍 귀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새벽 5시부터 일제히 운행에 들어갔던 광주 시내 버스는 1시간 늦춰 첫차 운행을 시작하고, 막차도 1시간 이상 빨라진 밤 9시에 개별 차고지에서 출발, 밤 10시 무렵이면 운행

이 종료돼 일부 학생들은 평소처럼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광주 시내 중·고교들은 당분간 야간자율학습을 중지하거나 시간을 조절하는 등 귀가 전장을 치르고 있다. 전교생이 1000명 안팎인 전남고에서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은 400명. 이 학교는 버스 통학생들에 한해 야간자율학습을 1시간 줄여 밤 9시 무렵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낸다.

버스 통학생이 빠져나간 어수선한 분위기에 속에서 나머지 학생들은 자습을 이어가고 있다. 버스 파업이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이 학교는 버스 파업 첫날부터 야에 야간

자율학습을 중단해버렸다. 다음달 9일로 예정된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생 200여명이 자원해서 밤 10시까지 자습을 하고 있었지만, 하교 시간 교통 불편을 이유로 학교 측은 파업기간 동안 야간 자습을 중단하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버스 운전기사 분들이 나름의 이유를 갖고 파업하는 줄 알고 있지만, 한창 공부해야 할 어린 학생들이 버스 파업으로 인한 통학 불편을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6일부터 전세버스 260대를 투입해 평소 시내버스 운행 수준으로 맞춰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

광주·전남교육청

일반직 정기 인사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7월1일자 일반직 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영단 22면>

광주는 서기관(4급) 전보 2명·사무관(5급) 승진 3명 등 총 217명을, 전남은 부이사관(3급) 승진 2명·서기관 승진 4명 등 총 702명에 대해 인사 발령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김병주 광주시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이 본청 행정예산과장으로, 이정원 행정예산과장이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으로 자리를 맞바꿨다.

사무관 승진은 장현주 풍양중 행정실장이 전남여고 행정실장으로, 이유근 광주풍향초 행정실장이 풍양중 행정실장으로, 김선정 광주정중 행정실장이 성덕고 행정실장으로 각각 승진 임용됐다. 사무관 전보에서는 박지홍 총무과 총무담당이 비서실장으로, 전병일 광주시유아교육진흥원 관리과장이 총무과 총무담당으로, 권래용 비서실장이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전보 발령되는 등 13명이 이동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김용순 총무과장이 행정과장으로, 김재일 행정과장이 나주공공도서관장으로 각각 승진(3급 부이사관)해 자리를 옮겼다.

또 박성수 목포공공도서관 총무부장이 홍보담당관으로, 이종범 예산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임의원 홍보담당관이 예산과장으로, 김기오 정책기획관 정책평가담당이 행정과장으로, 김기정 전남교육시설관리단장이 시설과장으로, 조재훈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이 거점교육성추진단장으로 각각 보직을 변경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유병언에 쏠린 틈 잇단 ‘황당범죄’

○“각급 경찰서 별로 ‘유병언 검거 전담반’을 조직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잇따르는 ‘황당 범죄’ 처리로 골머리.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에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화장품 판매점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김모(여·23)씨를 뒤에서 누군가 갑자기 발로 차고 도망가는 하반, 지난 20일 오후 8시에 화정동의 한 편의점 앞 길을 지나던 이모(여·24)씨를 향해 누군가 비비탄 총을 쏘았다는 등 황당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

○“유 전 회장 검거 수사는 물론 강·철도 등 강력 범죄사범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던 경찰은, 바쁜 와중에도 즉각 사건 현장에 출동해 CCTV와 차량 블랙박스 화면 조사 등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범인은 지금까지 오리무중. /김형호기자 khh@

2015. 5월 초공매장

한빛타워 분양/임대 비교할수록! 따져볼수록!

위치 가격 수익성 넘버원!

한빛타워 투자포인트

- 투자의 안전성** : 신탁회사(아시아신탁) 자금관리로 수분양자 보호
- 합리적인 분양가 실용적인 설계** : 인근 상가빌딩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높은 층고(4.2m~5.4m)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전용률 극대화로 수분양자 이익실현(1층 66.9%, 2층~4층 71.44%)
- 뛰어난 접근성** : 혁신도시 핵심상권에 위치하여 고객출입력이 우수한 프리미엄 상가, 5층에 스카이가든을 조성하여 운동, 휴식공간으로 활용

매주 투자설명회(수요일 13:00, 토요일 14:00, 분양사무실)

주식회사 오 늘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 010-5587-3080

시행: 한빛가림(유) 책임시공사: 견해중합건설(주) 신탁사: 아시아신탁

나주혁신도시 내 중심 상권 프리미엄 빌딩

한빛타워 분양사무실

한전 KDN, 농수산물 유통공사, 한전 KPS, 빛가람동 주민센터, 우정사업정보센터, 국립전파 연구원,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중앙호수공원